

발간번호
2012-10-01

2012 년도
현장리포트

# ‘후쿠시마’ 사태 이후, 2012 년 ‘히로시마’ 에서 다시 핵을 생각한다 - 일본 히로시마 원수폭금지세계대회 참관기

 <p>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p>	<p>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p> <p>주소 :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119-1 동원빌딩 206호</p> <p>전화 : (02)747-6887</p> <p>팩스 : (02)3672-6887</p> <p>홈페이지: <a href="http://www.chsc.or.kr">http://www.chsc.or.kr</a></p>
---	--

## **“No More Hiroshima, No More Nagasaki, No More Hukushima”<sup>1</sup>**

### **‘후쿠시마’사태 이후, 2012년 히로시마에서 핵을 생각한다**

2012년 9월 24일, 최규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

2012년 8월 4~6일, 한국의 의료인 8명<sup>2</sup>이 히로시마를 방문하였다. 일본 민주의료기관연합(이하 민이렌)<sup>3</sup>의 초청으로 일본은 찾은 이들은 ‘2012 원수폭(原水爆)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하였으며, 히로시마 평화박물관과 방사능영향연구소(Radiation Effects Research Foundation)를 견학하고 민이렌 소속 의사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글은 짧은 기간이지만, 핵의 피해를 두 차례나 겪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핵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정리된 내용들과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정리한 것이다.

#### **1. 2012년 원수폭 금지 세계대회**

이번 히로시마에서 열린 2012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는 약 7천 명이 넘는 사람이 일본 각지에서 모였다. 아이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전국 각지에서 각자 핵에 대해 반대하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들고 히로시마 현 체육관(Hiroshima Prefectural Gymnasium)으로 모여 들었다.

---

<sup>1</sup> 원수폭금지세계대회의 시작은 핵무기 반대를 근간으로 하지만,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발전의 문제가 같은 선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이 구호가 대회 내내 울려 퍼졌다.

<sup>2</sup> 8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경선, 양동석, 정형준(이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수정, 이승홍(이상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전미진(건강세상을 위한 치과 의사회), 최규진(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황상익(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과 교수).

<sup>3</sup> 전일본민주의료기관연합회(全日本民主医療機関聯合會, 이하 민이렌)은 ‘일하는 사람의 의료기관’으로 출발하여 1961년에 창립되었다. 민이렌은 의사 3천여 명을 포함한 7만 명 이르는 종사자, 병원, 의원, 치과, 약국, 복지시설, 그룹홈 등을 아우르는 1754개소의 기관이 소속된 진보적 의료조직이다.



◀히로시마 원수폭금지세계대회 개막식을 가득 매운 7천 여명의 사람들.

2012년 8월 4일의 개막식과 6일의 폐막총회에는 히로시마 시장을 비롯하여 쿠바, 멕시코 대사들을 비롯한 60여명의 각국 대표들과 전세계 반핵평화 활동가들이 함께하였다. 인상적인 것은 국제기구에 대한 호소가 상당히 중심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운동방식도 전국적 서명운동을 통한 국내외 여론 형성에 많은 무게를 둔다. 물론, 후쿠시마 사고 이후 보다 급진적인 목소리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작년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열린 2011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서는 자발적인 감시를 강조하며 정부의 무대책을 비난하는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인상적이었다면<sup>4</sup>, 올해는 도쿄의 수상 관저 앞에서 열리는 집회가 간접적으로 보여주듯이 직접 행동 촉구와 핵산업계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한층 강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강경한 발언이 나올 때마다 여지없이 큰 박수들이 쏟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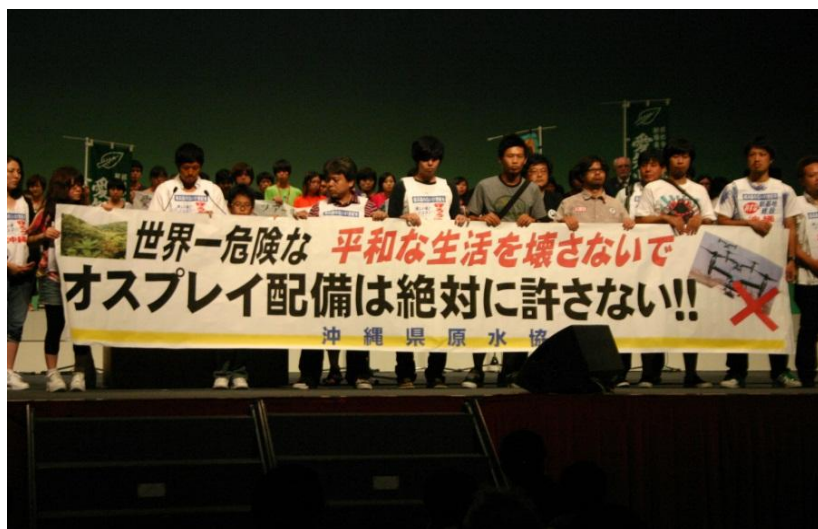


◀개막식에서 강렬한 메시지를 전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여성위원회 위원장 정영희씨의 발언 모습.

개막식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은 제주 강정마을에서 온 정영희씨의 발언이었다. 아름다운 강정 마을에 미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전세계인들의 관심과 연대가 필요하다며 눈물로 호소하는 그의 발언은 많은 이들에게 박수를 받았으며, 대회 내내 여러 인사의 발언에서 계속 언급될 만큼 큰 관심을 끌었다.

<sup>4</sup> 필자는 2011년 나가사키에서 열린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도 참가하였다.

그리고 폐막총회에서는 강정마을과 같은 연장선상에서 오키나와의 오스프레이 배치 문제가 큰 관심을 끌었다. 미국과 일본정부는 후텐마 기지 이전을 요구해온 오키나와 주민들의 저항을 묵살한 채, 잦은 사고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군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레이<sup>5</sup>를 후텐마 공군 기지에 배치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전략 틀 속에서 행해지는 한일 양국 정부의 너무도 유사한 행보를 보며 두 나라 민중이 왜 연대해서 싸워야 하는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오키나와에서 온 오스프레이 배치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 청년들.



◀후쿠시마 현의 나미에 마을 촌장과 마을 사람들.

대회 기간 내내 가장 절실하게 와 닿은 문제는 역시 후쿠시마 문제였는데, 특히 후쿠시마현의 나미에 마을 촌장이 들려주는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렸다. 지진 직후, '안전'만 떠들어 대며 정작 그 곳의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책하나 마련하지 않는 도쿄 전력과 국가로부터 받은 배신감, 전국에 흩어져 버린 주민 21,000 명의 파괴된 삶에 대한 안

<sup>5</sup> 오스프레이는 2012년 4월에도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추락해 미군 2명이 숨지는 등 사고가 잦아 미군들 사이에서는 '과부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다.

타까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촌장으로서의 죄책감을 토로하는 그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 “더 이상 우리 마을과 같은 일이 이 세상 어디에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의 절절한 호소는 어느 반핵운동가의 목소리보다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어진 일본공산당 대표의 발언은 작년보다 훨씬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오이원전 재가동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원전재가동반대 운동이 확산됐고, 이후 도쿄 수상관저 앞에서 60년대 이후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20만명 규모에 가까운 집회가 진행되는 상황을 고무적으로 설명하며, 보다 강력한 직접행동을 촉구했다.

## 2.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과 나가사키 피폭자 영상에 담긴 복잡한 시선들

히로시마 평화기념자료관은 핵폭탄이 인류에게 가져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피폭 이전 히로시마가 물류거점 지역으로서 정치·행정·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했던 모습과 피폭 이후 폐허가 된 모습의 대조를 보며 ‘파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이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필자의 표현력으로는 이 끔직함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길 권한다.)



◀1945년 8월 6일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이던 월요일 아침 8시 15분, 주인의 삶과 함께 멈춰버린 시계.

사람들이 분주히 각자 무언가를 하기 위해 시 중심지로 움직이던 1945년 8월 6일 월요일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투하되었다. 시 중심지에 자리잡고 있던 산업증진관(현재 원폭돔) 위로 떨어진 핵폭탄의 폭발로 7만 여명의 목숨을 사라져 갔다. 현재 이 건물은 인류가 같은 실수를 두 번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기억해야 할 상징물로써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되어 있다.

하지만 평화박물관과 원폭돔에서 벌어지는 각종 행사를 보며 불편함이 가시지 않았다. 파괴



자로서의 '미국'과 피해자이자 희망의 주체로서의 '일본'은 잘 그려지고 있으나 히로시마가 파괴되기까지 또 다른 파괴자로서 군림했던 일본의 모습은 감춰져 버렸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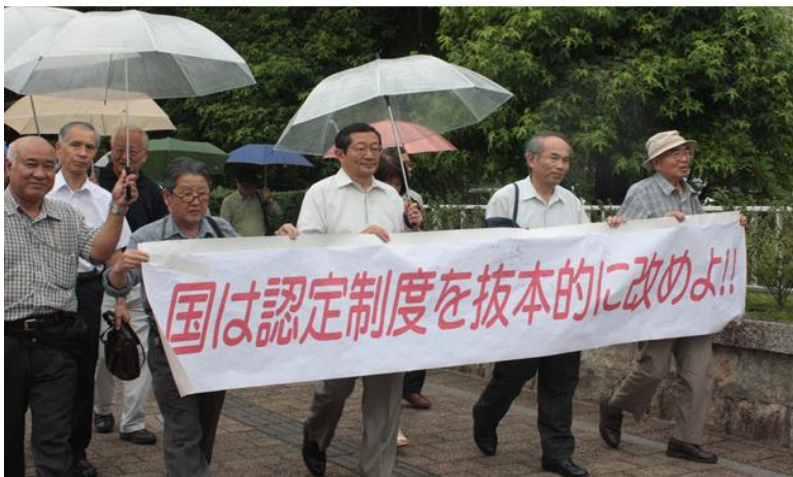
◀8월 6일 밤에 찾은 히로시마 원폭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아이들이 원폭돔 주변에 직접 만든 초를 놓고 강에 등을 띄우는 등 희생자를 추모하는 갖가지 행사를 한다.

이는 단지 일본에 대해 한국인으로서 느끼는 반감은 아닐 것이다. 진정으로 평화를 “기념”하기 위해서라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임이 분명하다. 대다수의 일본 민중은 피해자이며 희망의 주체로 그려지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일본 민중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피식민 국가의 민중들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간 지배자들과 일본이라는 국가의

역사적 책임소재마저 핵폭탄으로 날려버릴 수는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나마 민이렌 소속 의료인분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런 불편함을 조금은 달랠 수 있었다. 특히 나가사키에서 오신 카츠아키 아오키 선생은 한국 피폭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일본 정부와 싸워온 과정을 들려주었다. 일본 내에 이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느끼는 한편, 이 문제에 대해 무관심했던 나에 대해 반성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

**New Group suits of GENBAKUSHO recognition started 2012,5 by 73 plaintiffs who rejected new system of Special medical care Allowances.**



◀2012년 5월 일본의 특별 의료보호 수당 체계에 의해 거부당한 73명의 원폭피해자들을 모아 고소인단을 꾸려 새로운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운동에서도 해외 피폭자에 대한 보상 배제가 핵심적인 문제였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카츠아키 아오키 선생이다.

HIBAKUSHA out of Japan March 2007  
Total 4,275 (as well as 392 HIBAKUSHA in north Korea)

KOREA	2,893 68%	AUSTRALIA	22
U S A	966 23%	TAIWAN	15
BRAZIL	157 4%	ARGENTINA	12
CHINA	63	INDONESIA	9
CANADA	34	BOLIVIA	9

◀카츠아키 아오키 선생이 정리한 2007년 3월 당시 일본 외 피폭자들의 현황. 한국인이 가장 많으며 북한에도 상당한 피폭자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그는 히로시마에서는 처음 공개하는 것이라며 미국인이 1945년 당시 나가사키에서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이 흥미로운 영상에는 당시 직접 피폭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미국 보건의학박물관에 남아있는 자료로서 GHQ 인체조사반 엘버트 드커시(Elbert DeCoursey)가 촬영한 것이다. 의학적으로 이런 귀한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 자체는 반가웠으나, 피폭당한 어린 여자아이의 옷을 벗겨가며 찍어대는 카메라의 폭력적 시선에 또 한번 불편함을 느껴야 했다.



◀왼쪽 그림과 같이 고환 이외에도 위, 식도, 편도 등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의 각 부위 병리 조직이 피폭 후 경과된 날짜(사망날짜로 추정)와 함께 영상에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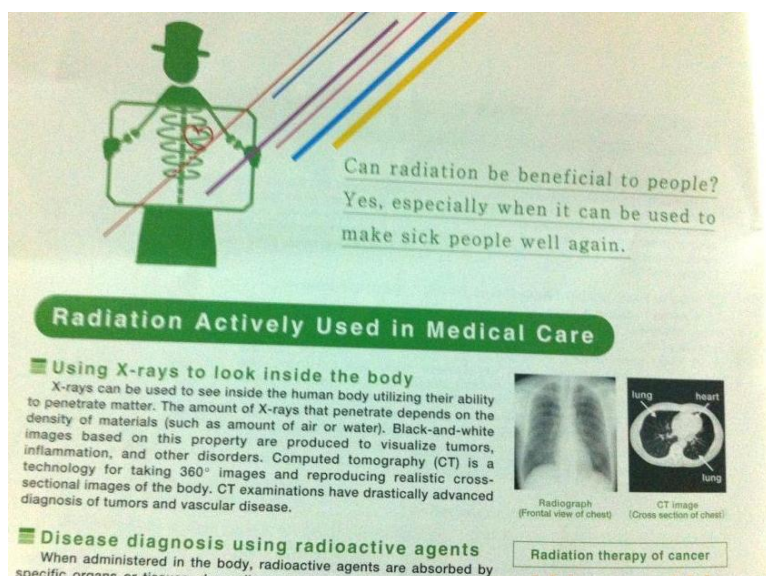


◀촬영을 위해 피폭된 여자아이의 옷을 벗기는 미국 조사원.(선명한 영상을 필자가 일부러 뿌옇게 처리했다)

### 3. 방사선영향연구소(Radiation Effects Research Foundation, RERF)와 ‘검은 비’

이 위험한 핵을 둘러싼 모순적 행태들이 불러일으키는 불편함은 단지 과거의 영상 하나에 담긴 것만은 아니었다. 일년에 두 번 정도밖에 개방하지 않는다는 방사선영향연구소(Radiation Effects Research Foundation, RERF, 이하 방영연)는 이 불편한 역사의 진행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방영연은 1947년 발족된 원폭상해조사위원회(Atomic Bomb Casualties Commission, ABCC)를 모태로 1975년에 만들어진 일-미 공동조사 연구기관이다.<sup>6</sup> 미국이 핵폭탄을 투하한 후 연구자들을 파견하여 피폭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연구를 행한 곳이다. 그렇기에 전세계에서 ‘방사선의 건강영향 평가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곳에서 전시하고 있는 데이터를 보고 있자니 불편함을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 연구소의 전시가 말하고 있는 바를 간단히 말한다면, ‘방사성 물질은 주변에 흔한 것이며 실제로 조사해 보니 피폭자들의 상태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사성에 의해 죽을 가능성보다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죽을 확률이 더 많으니 운동이나 하라’는 것이다.<sup>7</sup>



◀방영연에서 제작한 팸플릿은 방사능의 유용성을 설명하는 내용이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sup>6</sup> 말이 '일-미 공동조사 연구기관'이지, 과거 ABCC였을 당시 피폭 지역에 대한 일본 측의 자체조사가 사실상 차단됐다고 한다.

<sup>7</sup> 2009년 이곳을 방문한 바 있는 주영수 한림대 산업의학과 교수에 말에 따르면, 2001년부터 7년간 원폭 피해자 2세를 조사했다는 결과에서, 생존자 2세의 생활습관병이 방사선에 피폭되지 않은 집단에 비해 질병 위험도가 오히려 낮다고 주장할 정도로, 전문가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자료들이 생산되고 있다고 한다. 피폭이 적었거나 유전적으로 방사능에 저항이 커 생존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일부 조사한 것을 가지고 이런 일반화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출처: <한겨레21> 제773호)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성은 물론 의료방사선에 대한 문제제기가 대두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핵폭탄과 핵발전소 사고를 동시 경험한 나라의 방사능 연구소에서 방사능의 안전을 설명하기 바빴다. 안내를 해주신 민이렌의 의사 분께서도 안타까웠는지 “이것이 일본의 현실입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뉴욕 행 왕복 비행기를 한번 타게 되면 엑스레이를 8번 찍는 것과 같은 방사선에 노출되게 된다.” 어용학자들이 주장을 펼 때 인용하곤 하는 이 얘기가 포스터로 만들어져 버젓이 걸려 있었다. 이왕 버린 몸이니 방사선 좀 더 쏘여도 된다는 것인가? 그런 선전물을 읽고 있자니 안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고선량 방사선에 노출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자연방사선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부표면이 노출되는 정도의 문제다. 핵사고로 인해 퍼진 방사성 물질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외폭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내폭의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와 물, 음식물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 투하 이후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검은 비’가 내렸고 내부피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일었는데 이를 철저히 은폐하는데 바로 방영연의 전신인 ABCC 연구소가 주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아마 내폭의 문제가 제대로 제기되었다면 일본 지배층과 미국정부는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바로 그 이해관계에 “피폭된” 역사가 방영연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다.



◀원수폭 금지세계대회에 맞춰 발간된 <검은비: 내부피폭의 고발>, 내부피폭으로 인한 피해 증언을 담은 책이다.

사실 내폭의 문제가 일본에서 그토록 철저히 차단되어 왔다는 사실에 적지 않게 놀랐다. 결국 후쿠시마 사태라는 핵사고가 그 봉인마저 깨트렸다. <검은 비>라는 제목의 내폭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담긴 책이 원수폭 금지 세계평화대회에 맞춰 발간된 것이다. 아울러 내폭을 당한 각 지역의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호소와 함께 전국적인 인터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실제 그들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을 판매하고 있었다. 2011

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한국정부의 발표<sup>8</sup>에 아연실색했었는데 일본에서 내폭의 위험성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한국인의 입장<sup>9</sup>에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4. 마치며

현대 사회에서 핵이 가져왔던 이중적 시선은 일본에서 마치 하루키 소설의 구성처럼 오묘하게 얹혀 있었다. 핵은 많은 것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였고 경제재건과 발전을 위한 에너지의 근원으로 상징되기도 하였다. 보다 복잡하게는 피해자로서 내세우는 상징물이자 가해자로서의 폭력을 가리는 가림막이기도 하고, 자랑스러운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이자 철학 없는 기술의 한계이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그 어떤 근거와 이해가 존재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간단하다. 더 이상 핵을 긍정적으로 봐줄 그 어떤 수사도 이제는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모순을 안고 살아온 일본이기에 세계평화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그 모순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와 핵발전 모두에 대해 근본적인 반대 운동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우리 역시 관심 갖고 함께 고민해야 한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후쿠시마의 일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뿐, 제국주의적 역학관계 속에서 실재하는 핵무기와 이윤논리 속에 멈출 줄 모르는 핵발전이 있는 한반도의 상황은 일본보다 나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현장탐방기 2번째 <일본 의사들이 전하는 후쿠시마의 상황과 현재 일본의 반핵운동>이 계속됩니다.

---

<sup>8</sup> 물론 그것도 국가정보원이 개입된 허위 정보로 밝혀졌다.

<sup>9</sup> 일본과 가까운 만큼 직접적으로 대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본산 먹을거리의 수입으로 인한 내폭의 위험성 문제가 심각하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농수산식품 검역에서 방사능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명태의 양은 1030톤에 달한다.